

해인사 길목에 또 골프장



동아스포츠 사업 추진...주민·환경단체 강력 반발

인사인근에 또 하나의 골프장 건설허가를 요청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해인사와 주민 및 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이달 말경 대대적인 반대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인근에 또 하나의 골프장 건설허가를 요청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해인사와 주민 및 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이달 말경 대대적인 반대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동아스포츠 건설반대 투쟁위원 회(공동위원장 황현석외 5인)는 "골프장건설 예정지는 지대가 높고 주민거주지와 가까워 식수오염이나 토사유출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경북대 환경농학대는 7월2일부터 9일까지 해인골프장 건설로 피해를 입게되는 지역주민으로 현장활동을 가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북대 환경농학대는 7월2일부터 9일까지 해인골프장 건설로 피해를 입게되는 지역주민으로 현장활동을 가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각사 수몰 안된다"

건교부, 은해사에 회신
인각사가 건설교통부의 군위담건설 계획안변경으로 수몰위기에 벗어났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은해사에 보낸 공문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해 인각사가 수몰되지 않도록 군위담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해사주지 법사님의 인각사 수몰 반대 청원에 대한 회신에서 건교부는 "오는 99년 담건설 기초계획을 확정, 2000년쯤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인각사가 수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문화재관리국, 은해사 등의 잇따른 인각사 수몰 반대요청에 대해 보존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함에 따라 인각사는 민족정신의 산 교육도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천=이윤호 기자)
(본지 131호 1면 참조)

"훈할머니 불심으로 이긴 50여년"

조계종, 혜진스님 파견...반야심경 봉독 등 위로

18세 꽃다운 나이에 일제에 의해 함포도로 끌려가 50여년의 세월을 '방각의 눈'에서 살아온 훈할머니(73). 그동안 성도 아픔도 모두 잊었지만 오직 불심(佛心) 하나로 훈할머니는 그 모진 세월을 이겨냈다.

위안부 출신 김복동(72) 할머니와 함께 18일 훈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20일 귀국한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은 "참으로 순박하고 인정많은 전형적인 시골 할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훈할머니에 대한 인상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특명으로 급파됐던 혜진스님

장성군, 백양사에 사과

관정개발등 취소...납골당지원 금점검토

두달 반동안 계속된 백양사와 장성군의 갈등이 장성군수와 사과문 전달로 해소됐다.

백양사(주지 지선)는 14일 토진스님 법선스님이 김홍식 장성군수와 만나 사과의 뜻을 거듭 확인하고 일일회의를 거쳐 "장성군의 발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확정하되 고분총림 대책회의(위원장 성오스님)를 해체했다.

월급전액 복지단체 보시

19년

부산 반야라이온스

25일 창립 '자비봉사'

부산반야라이온스클럽(회장 김중호)은 25일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법사 주지 성오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김중호회장은 "부처님의 자비를 배움과 지역사회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108배 行禪등반 급류타기 동굴탐사...

청소년 국토사랑 대탐험

현대불교신문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심신을 길러주고 우리 국토의 배어남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국토사랑 대탐험' 행사를 펼칩니다.

- 일 정(2박3일)
○1차: 7월 21일~23일
○2차: 7월 26일~28일
○3차: 8월 4일~6일
- 참가대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고등학생
- 각 차수별 40명씩 모집
- 장 소: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정선 영월 미탄 천연동굴 용령
- 참가비: 13만원 (숙식 교통 관공 티셔츠 보령료 등 기타일체 포함)
- 단, 현대불교 구독자 및 가족은 11만원으로 할인(16%)해 드립니다.
- 접 수: 현대불교신문·한국탐험학교 (02)738-0997
- 후 원: 조계종교원 수선회 목동청소년회관 불교방송 불교TV

호국영령 안식처 양양 영혈사

19년

나는 이나라 불교도의 한 사람으로 어린|들에게 참회를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불교도 존재의 이유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 종교들이 가장 힘쓰는 것이 어린이 포교다. 어릴때부터 종교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것이 종교발전에 가장 지름길이라는 논리이고 가장 많은 부자를 여기에 쏟고있다.
불교는 우리 역사와 문화와 민족과 생활을 배경으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렇듯 소홀하였다. 아동간지 하나를 끌어가지 못한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 불교가 어린이에게 베푼 것은 참으로 미미하다.

참회의 삶을 살자

신현득
기러기라도 어린이에게 참회를 알리라
우리는 부처님이 몸소 아동교육에 얼마나 애쓰셨던가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세계 최초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
사미계는 교육의 덕목이요, 교육과정이었다. 부처님은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담신의 열육인 라후라에게 사미계를 설하고, 담임 선생님이오 아란을 임명하여 그 덕목을 마음에 배도록 가르치게 하셨다.

불교아동잡지와 누우침

생명을 아끼라고 가르치셨다.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건진하지 못한 놀이를 말라고 가르치셨다.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굳것질 말고 배맛취 식사를 하라, 값진 물건으로 몸을 꾸미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불설 사미10계는 오늘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훈화 그대로다.
불제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했던가? 부처님 법이 보배롭다면 보배로운 유산을 먼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 아닌가.
아버가 못나서 자식을 잃는 격이 되고 있지 않는지, 내 가장 내 이웃을 돌아보자.
불교가 제대로 되려면 어린이 교화에 가장 많은 부자를 해야 한다. 그때서야 불교가 살고, 불교가 살아야 우리 문화가 살고, 우리 문화가 살아야 우리 자손이 한국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게 아닌가.
이 무서운 현실을 두고 우리는 어린이를 앞에서 누우쳐야 한다. 불교가 살길이 그것 뿐이다.
(아동문학가)

구독료납부 은행지보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국내 최초 차안에서 보는 내 차의 주행정보- 카 네비게이션 시스템 탄생

장국 어디서나 자가차량의 현재위치 표시, 진행방향 확인은 물론 관공서, 호텔, 병원, 톨게이트 등의 위치, 주소, 전화번호 등 상세한 정보까지 비로로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도 막대한 초행길도 이제, 카 네비게이션 시스템 현대 HNS-2000과 함께 달려보십시오.

현대 HNS-2000 구성품

- 본체(1대)
- 전원케이블
- CD-ROM
- GPS 수신기
- GPS 수신기
- GPS 수신기
- GPS 수신기

현대 HNS-2000 주요기능

- 현재위치 표시기능
- 현재지역 정보 및 서비스 기능
- 지도 축소/확대 기능
- 경유지 및 코스설정기능

Car Navigation System이란?
GPS 위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 차량에 설치된 컴퓨터에 의해 현재의 위치, 자가차량의 위치, 방향 표시 및 각종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다.

DMZ 문화재 훼손 '무방비' 13년

현대전자
멀티미디어의 뉴 프론티어
HYUNDAI